Q

뉴스홈 | 최신기사

# 벤투호, 내년 1월 전지 훈련서 국내파 '최종 옥석 가리기'

송고시간 I 2021-11-17 16:53











장보인 기자

K리거·J리거 위주로 팀 구성...해외팀과 연습경기 추진



#### 후련 지켜보는 벤투 감독

(파주=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앞두고 8일 경기 파주트레이닝센 터(NFC)에서 열린 소집훈련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 2021.11.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정조준하는 벤투호가 내년 1월 국내파들의 '마지막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17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해외 전지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라크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6차전(3-0 승)을 끝으로 올해의 A매치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는 예선 6경기 무패(4승 2무)로 이란(승점 16·5승 1무)에 이어 조 2위(승점 14)를 지키며 월드컵 본선 진출 가 능성을 높였다.

남은 예선 4경기가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벤투 감독 은 1월 선수들을 소집해 '카타르행'을 위한 담금질을 이어가고자 한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훈련 장소는 미정이다. 다만 월드컵 본선이 카타르에서 열리는 만큼 중동 지역과 터키 등을 후보로 살펴보고 있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시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이 기간 벤투호는 해외팀들과 연습경기를 통해 감각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상대나 경기 횟수 등도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1월 평가전은 남은 최종예선과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국내파 선수들이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누구보다 빠르게

(도하=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2021.11.15 superdoo82@yna.co.kr

전지 훈련이 A매치 기간에 진행되지 않는 만큼, 유럽파 선수들의 합류는 어렵다.

김승규(가시와 레이솔), 주세종(감바 오시카) 등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을 경우 시즌을 마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의조(보르도), 이재성(마인츠), 김민재(페네르바체) 등 유럽파는 한창 소속팀에서 시즌을 소화할 때다.

완전체를 가동할 수 없는 벤투 감독은 K리그와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야 한다.

국내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좋은 기회다.

11월 최종예선 5, 6차전을 앞두고 주전 스트라이커 황의조와 수비수 김영권(감바 오사카)이 부상으로 불참했지만, 벤투 감독은 조규성(김천), 권경원(성남) 등을 기용하며 이들을 시험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험대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선수는 많다.

김건희(수원)는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으나 아랍에미리트(UAE)와 5차전, 이라크와 6차전에서 벤치를 지켰고, 백승호와 송민규(이상 전북), 엄원상(광주)도 아직은 대기조다.

벤투호 멤버로 카타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선수들은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한편 한국은 내년 1월 27일 레바논과, 2월 1일 시리아와 최종예선 7, 8차전을 원정으로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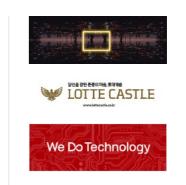
내년 3월에는 이란, UAE와 9, 10차전이 예정돼 있다.

이미 본선행의 8부 능선을 넘은 한국은 조 2위 이상의 순위를 지키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목표를 이루게 된다.

boin@yna.co.kr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7 16:53 송고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7 안 맞아"(종합)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 56 동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40 힐예정"

뭐하고 놀까? ##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웹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